

민족고전문헌 《환재집》에 수록된 19세기 우리 나라 화폐제도에 대한 자료의 사료적가치

리 경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느 사회에서나 물질적부의 창조자는 근로인민대중입니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창조한 물질적부를 극소수의 착취계급이 독차지하고 자기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리용합니다. 착취사회에서 재정은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여 굶어모은 돈을 착취계급의 지배와 치부를 위하여 리용하는 수단으로 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3권 360페이지)

우리 나라 민족고전인 《환재집》은 조선봉건왕조말기의 관료이며 개화사상의 선각자의 한사람인 박규수(1807—1876)의 시문집이다.

박규수의 자는 환경(초기에는 桓卿, 후에 璫卿), 호는 환재(초기에는 桓齋, 후에 璫齋)이다. 그는 생전에 적지 않은 문필활동을 벌린것으로 하여 문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1807년 9월 27일 한성(서울)의 계동에서 현감 박종채의 아들로 태어난 박규수는 어릴적부터 할아버지 연암 박지원(1737—1805)의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부패한 봉건국가의 개혁과 국방력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그는 1848년 문과에 합격하여 참판과 판서, 대제학, 평안도관찰사를 거쳐 우의정까지 지냈다.

박규수의 《환재집》은 11권 5책으로 되어있으며 1권부터 3권까지는 200여수에 달하는 시들이 들어있고 4권부터 11권까지는 여러가지 산문들이 기록되어있다.

《환재집》에 수록된 산문들에는 주로 미국침략선의 침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자료들,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적의견들, 환자법을 비롯한 봉건적착취제도의 폐단을 논의한것들과 함께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의병장들에 대한 자료들이 수록되어있다.

그가운데는 19세기에 문란해진 화폐제도에 대한 자료들도 있다.

19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조선봉건왕조는 심각한 사회정치적위기에 직면하였다. 이 시기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과 유미자본주의렬강의 로골화되는 침략책동으로 하여 봉건국가는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해있었다. 더우기 60년간에 걸치는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로 하여 봉건왕권이 무력해지고 봉건통치제도가 극도로 문란해진 결과 봉건국가의 붕괴위기는 더욱더 촉진되어가고있었다.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집권한 조선봉건왕조 26대왕 고종과 국왕 다음가는 국가의 최고실권자로 된 대원군 리하응은 무너져가는 봉건국가의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왕권을 강화하고 채국정책을 실시하는 방향에서 일련의 정책을 세우고 강행하는 길로 나아갔다.

11살의 어린 고종대신 국가권력을 한손에 거머쥔 대원군은 새 정치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서 임진조국전쟁시기에 불타버렸던 경복궁재건공사부터 시작하였다.

대원군은 왕조의 권위이자 자기의 위세라고 생각하면서 체면과 위력을 시위하기 위하여 방대한 경복궁재건공사를 벌려놓았으며 동시에 의정부뿐만 아니라 각급 관청건물건설, 강화문앞거리복원 등 한양도시건설을 동시에 벌려놓고 그 명목으로 전국적범위에서 거액의 돈과 수천섬의 백미를 거두어 건설비용으로 탕진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비용이 모자라게 되자 대원군은 《원납전》이라는 명목으로 백성들

의 보잘것없는 엽전마저 뽀뽀 긁어냈다.

당시 항간에서는 대원군의 가혹한 수탈을 증오하는 뜻으로 《원납전(자원해서 바치는 돈)은 원납전(원한 품고 바치는 돈)》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다.

총 부지면적이 12만 6 976평에 달하고 높이 6.6m의 돌담으로 둘러쌓인 경복궁건설만도 각종 명목으로 1865년 4월부터 1868년 7월초까지 3년 남짓한 기간에 7백여만냥의 돈을 수탈하여 건설에 밀어넣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당시의 착취상과 사회경제형편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경복궁건설과 함께 한성에서 중앙관청들이 일떠서고있을 때 지방에서도 도, 군, 현 소재지들과 주요군사요충지들에서 건설공사가 벌어졌다.

경복궁과 그밖의 건축사업에 수많은 로력과 막대한 량의 자금을 대느라고 농민들은 농사일을 망치게 되었고 수공업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으며 중소상인들은 장사밀천까지 털리우게 되었으나 그것으로도 건설비용이 모자라게 되자 봉건정부는 새 화폐를 주조하여 유통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봉건국가는 한성을 비롯하여 각 도의 감영들에 주조소를 설치하고 돈을 주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수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동원시켜 로들을 건설하고 주조를 시작하였다. 당시 화폐주조는 국가에서만아니라 개인들에 의해서도 진행되었다.

각지의 대상인들은 화폐주조에 필요한 많은 량의 동과 주석을 무역하여 국가에 팔아먹는 한편 몰래 화폐를 주조하여 막대한 리득을 보았다.

19세기 중엽에만도 여러건의 사주(개인에 의한 화폐주조)사건이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도 개인들에 의한 화폐주조가 얼마나 성행하였는가를 알수 있다.

이에 대하여 박규수는 《부유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로를 설치하여 돈을 주조하도록 허락하고 관청에서 세금을 받았는데 이때문에 관청이나 개인이 다같이 리득을 본다고 잘못 말하였고 필요이상의 돈이 나라안에 넘쳐나고 물건값이 뛰어들라 하나의 병집으로 되었으나 로를 설치한 사람들은 이때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리득을 보았다. 때문에 모든 물건들이 유통되지 못하였고 물자교역은 마침내 끊어지고말았다.》라고 개탄하였다.((환재집》권6 현의)

다급해난 봉건정부가 화폐의 비법주조로 물가가 폭등하고 각종 사회악이 만연되는것과 관련하여 국가의 승인없이 돈을 주조하는것을 엄금한다는 지시를 내렸지만 리속을 채우기 위한 개인들의 화폐주조는 그치지 않았다.

다량적인 화폐주조로 인하여 봉건국가의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지만 봉건정부는 《매우 많이 쌓아두고있는 청나라의 동전을 녹여서 그릇을 만드는 재료로 쓰는것은 도리어 말이 되지 않으니 이미 쓰는 당백전과 함께 통용시킨다면 관청과 개인사이 거래에서 힘을 펴는 방도가 될것이다.》라고 하면서 청나라화폐까지 통용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급격히 늘어난 청나라화폐와 이미 주조해낸 막대한 량의 돈으로 하여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값은 계속 올라가서 백성들의 생활을 더더욱 궁지로 몰아갔고 봉건관료들의 부정부패행위만 늘어났다.

이에 대하여 박규수는 《지금 청나라돈으로 인한 폐단이 최근에 와서 극도로 심하게 된것은 대체로 그 까닭이 있다. 청나라돈을 통용한것은 대개 한때의 립시변통에서 나온것인데 7~8년동안 흘러나온 돈이 많다나니 돈이 천해지고 물건이 귀해지는 현상이 날로 심해져서 자연히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모두 곤란하게 되고 민심이 황급하게 되었다.

끝내 급히 폐지할것을 논의하지 못한것은 사실 수도나 지방의 관청에서 모두 청나라돈을 쌓아놓고있는것만큼 일단 폐지한 후에는 보충할 대책이 없게 되니 모두 쓸모없는것으로 되고말기때문이다. 이것이 눈앞에 닥쳐온 절박한 근심이다.》라고 개탄하였다. (《환재집》 권 6 7 回의)

이처럼 당시 청나라화폐는 백성들의 빈궁과 각종 사회악만을 낳게 하였고 봉건통치배들을 더욱더 부패타락시켰다.

뿐만아니라 돈이 권력보다 더 힘있는 무기의 하나로 되어가면서 돈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려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봉건정부는 권력과 돈을 탐내어 전횡을 부리면서 미쳐날뛰는 썩어빠진 봉건량반관료들의 란무장으로 되고말았다.

세도문벌들은 중앙과 지방의 주요벼슬자리들을 저들이 독차지하는 한편 나머지벼슬들을 거의 돈있는 자들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감행하였는데 그 결과 이 시기에 감사급의 벼슬값은 10만~20만냥, 고을원급의 벼슬값은 최하 5만냥으로까지 뛰어오르는 정도였다.

중앙의 관리들뿐만아니라 감사를 비롯한 지방관리들모두가 돈으로 벼슬자리에 올라앉아서는 돈벌이공리부터 하였으며 자기 임기안에 벼슬자리를 사기 위하여, 퇴물을 먹인 밀천을 뽑아내기 위하여 날마다 가난한 백성들을 악착하게 착취하면서 갖은 횡포와 수탈을 다 감행하였다. 그것은 경상도암행어사로 나갔던 박규수가 왕에게 올린 보고문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진주에서 농민폭동군이 봉기를 일으킨것은 전적으로 이전 우병사 백락신이 재물을 탐내어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굴었기때문입니다. 작년 겨울에 환자곡식의 값을 높여 리득을 본것이 4 100여냥이고 병기고에 저축하였던 돈을 작당하여 쌀을 사가지고 리득을 본것이 3 100여냥이며 축이 났다는 명목으로 값을 낮추어 받아들여 리득을 본것이 1 400여냥이고 청천의 군사훈련장에서 사는 많은 백성들이 땅을 일구었을 때 승인없이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강제로 빼앗은 돈이 2 000여냥이나 됩니다. 그것을 도로 주었다고 하지만 원한소리는 그치지 않고있습니다. 칠원 등 4개 고을의 좀 부유한 백성들이 금지할데 대한령을 어기고 광물을 채취했다고 하여 악형을 가하고 강제로 빼앗은 돈이 2 000여냥이고 여러차례에 걸쳐 허위등록한 집에 대한 빚을 하루아침에 거두어들인것이 수만여냥이나 됩니다. 병영에서 환자곡식이 축났다고 하면서 기회를 엿보아 일시에 6만여냥의 돈을 호구들에 배당하고 강제로 크게 징수하였습니다.》(《환재집》 권7 서계)

19세기에 중앙의 세도량반들과 지방의 아전들에 의한 착취가 완전한 강탈로 변하여 농민들을 대중적인 파산몰락으로 몰아넣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었으며 그로 하여 인민들의 생활처지는 말할수 없을 정도로 더욱 비참해졌다.

우의 자료들은 우선 당대의 문란해질대로 문란해진 사회경제형편에 대하여 잘 알수 있게 한다.

우에서도 본바와 같이 봉건국가의 왕권을 틀어쥔 대원군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은 기울어져가는 봉건제도를 유지하고 봉건왕권을 공고히 할 목적밑에 경복궁개건공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공사들을 벌려놓고 그 명목으로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를 강행하였다. 원래부터 경제토대가 미약한 상태에서 방대한 공사를 벌려놓은 봉건통치배들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혈세를 빨아내다 못해 그것으로써도

공사자금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청나라의 화폐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기울어진 경제위기를 수습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화팽창을 비롯한 경제제도의 문란을 조성하였고 봉건통치층안에서 매관매직과 같은 부정부패만이 더 성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화폐제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제도적인 조치들은 봉건국가의 멸망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우의 자료들은 또한 당대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수탈행위와 부정부패의 일단을 잘 알수 있게 한다.

《환재집》에 수록되어있는 이전 경상도우병사 백락신이 여러가지 명목으로 인민들을 수탈한 자료는 당대 봉건통치배들이 감행한 만행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다.

진주일대에서 감행한 백락신의 수탈행위는 당시 모든 봉건관료들이 감행한 수탈행위의 전모를 적나라하게 까밝히고있다. 이것을 통하여 당시 봉건통치배들이 인민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착취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한편 청나라의 화폐도입을 계기로 봉건통치배들이 개별적으로 화폐를 주조하여 저들의 배를 채웠다는 자료를 비롯한 일련의 자료들은 당시 봉건통치배들속에서 성행한 부정부패현상의 일단을 잘 알수 있게 한다.

그러나 민족고전문헌 《환재집》에 수록되어있는 자료들에는 저자인 박규수자신이 봉건관료인것으로 하여 당시의 사회악과 문란한 화폐제도를 두고 우려만 하였을뿐 이러한 현상을 빚어낸 근원이 봉건제도 그자체에 있다는것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밝히지 못한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봉건사회의 현실을 여러 측면에서 예리하게 분석한 자료들은 19세기 우리 나라 사회형편을 연구하는데서 일정한 가치를 가진다.